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도심 속 국가습지 된다

수달 등 820종 생물 서식
시민 1000명 조사 86% 찬성

광주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록습지 보존이나, 개발이나를 놓고 지역 사회 의견이 갈리면서 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유보됐지만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조사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820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된 장록습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85.8%, 반대 14.2%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개발이 아닌 보존을 선택하면서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1년 2개월간 이어졌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

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와 관계없이 10명 중 8명 이상이 습지 보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광주시가 최근 장록습지 인근 주민 500명, 광산구 주민 200명, 광산구 외 주민 300명 등 모두 1000명을 선정해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고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답변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로부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아, 곧바로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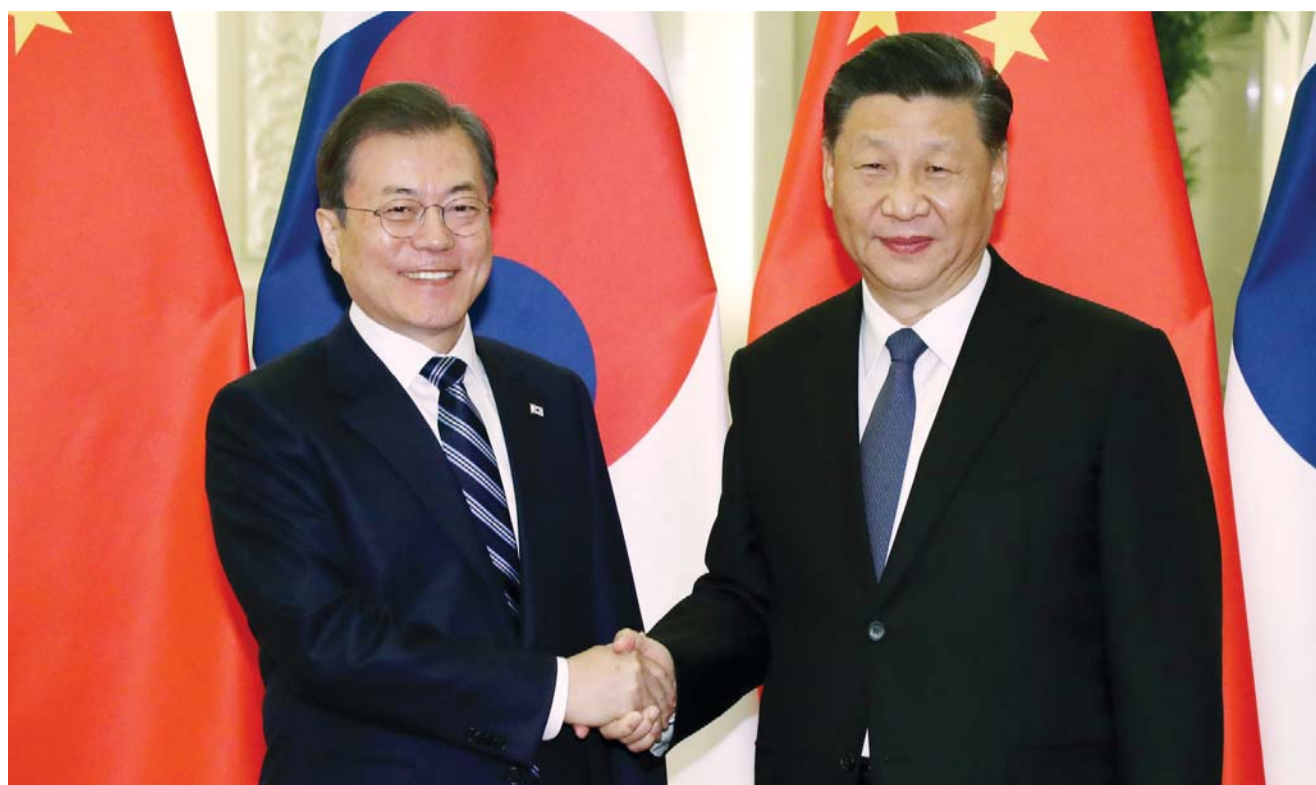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지정계획 수립, 지역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이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황룡강 장록습지가 지정되면 지속가능한 습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광산구 호남대 앞부터 영산강 합류부(광주공항)까지 약 8km 구간이다. 면적은 광산구 장록동, 서봉동, 선암동을 걸쳐 3.06km². 강(하천)과 그 주변 습지여서 사유지 0.02km² 제외한 3.04km²가 국유지다.

지난 2017년 광주시 의회를 받은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정밀조사한 결과,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체육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개발을 요구하는 여론이 나오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이 멈춰섰다. 이후 주민,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찬성은, 반대는 격차가 6.5%P 이상 나면 그 결과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국립습지센터가 지난해 3-12월 정밀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에는 육상곤충 320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식물종 179종,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양서파충류 7종, 어류 25종, 저서무척추동물 48종 등 모두 820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종 1급),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이상 2급) 등 멸종위기생물 4종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시진핑 "북미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야"

한·중정상회담
"미세먼지 문제 긴밀 협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 속에 북한의 '연발 중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대화'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대화 모멘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는 나의 진심 어린 말"이라며 양국 간 밀접한 소통을 통한 양자관계의 심화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

은 부분이 더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협력에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내용을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문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협력과 관련,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양 국민이 체감하도록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5·18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가시화

靑, 26일 조사위원 추천 재가
한국당 추천 2명 검증 완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2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는 오는 26일께 조사위원 추천 재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 조사위원으로 추천된 9명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지 한 달만이다.

전체 조사위원 9명 중 지난 2월 조사위원 첫 추천과정에서 7명만 인사검증 절차를 통과해 추천됐으며, 2명은 탈락했다. 이후 재추천된 이종형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의 인사검증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관련 추정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빠른 5·18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조사위원들의 자격에 논란이 있지만, 진상

조사위가 출범하면 5·18진상규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2년이며, 1년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안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자유한국당),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교수·서애련 변호사·이성훈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 7명이 위원으로 추천돼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0년 '인공지능 광주시대' 원년으로"

이용섭 광주시장 기자회견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지난 1년 6개월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2020년은 '인공지능(AI)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출범 후 1년 6개월의 대표적인 15대 핵심성과와

10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 국비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16년간 지역개발을 초래했던 도시철도 2호선은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올 여름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광주형일자리 자

동차공장 착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유치 등 미래 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광주는 이제 정치 1번지를 뛰어넘어 경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광주가 앞선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 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며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프로젝트는 혁신 시정의 대표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스마트한 쇼핑,
Shop Guam

SHOP GUAM e-FESTIVAL
2019.11.10 - 2020.02.10

광정부관광청 공식 어플
쇼핑 / 맛집 / 액티비티 등
무한 혜택 제공!